

## 성명문

일본이 꾀하는 전쟁에 <제국의 틈새> 민중을 끌어넣지 마라.  
한반도 -오키나와 - 대만에 걸쳐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본의 <신냉전> 에  
반대하자.

### ▶섬 사람들을 위기로 모는 <난세이 제도[南西諸島] 군사화>

2021년 11월 14일, 드디어 미야코섬[宮古島]에 미사일이 반입되었다. 가장 가까운 민가에서 약 250m 거리, 350여 명이 사는 두 취락이 반경 1km 권 위치에 있는 탄약고에 지대함 미사일 등이 반입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미야코섬 미사일 부대는 본격적인 운용 태세에 들어갔다.

미야코섬과 오키나와섬[沖繩島] 사이를 잇는 미야코해협이란,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여 상선 통행마저 막을 해상봉쇄를 목표로 한 미일 군사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급소(choke point)다.

해협을 오가는 중국 함대를 겨냥한 미사일이 미야코섬 사람들을 지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미사일 옆에 놓인 섬사람들의 삶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미야코섬 뿐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유구호[琉球弧, 류큐 제도를 뜻함] 섬들을 중국 함대 앞을 가로막는 지대함 미사일 부대의 최전방 기지로 만드려고 꾀하고 있다. 요나구니[与那國], 이시카기[石垣], 미야코, 오키나와,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다네가시마[種子島], 마게시마[馬毛島]...이상 섬들에서 자연과 생활 환경을 파괴하면서 급속히 진행되는 소위 <남서 시프트[南西シフト]> 로 불리는 군사 대비태세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과 동시에 이 지역에 중압과 위협을 집중시킬 것이다. 만약 한 번 일이 터지면 유구호는 일본, 미국, 중국이라는 세 강대국이 부딪치는 <국지 전쟁> <섬 전쟁> 의 현장이 될 것이다. 그것은 2차전 당시의 오키나와 전투 비슷하게 군과 민간인 섞인 공간 속에서의 전쟁이 될 것이다.

세 강대국이 막상 교전을 벌일 가능성은 낮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겁게 깔린 군사적 긴장 그 자체가, 유구호 섬들에 사는 사람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자기결정권을 빼앗아 지역사회 군사화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도쿄, 워싱턴, 베이징을 위한 전쟁이 <제국> 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작은 섬 사람들을 위태롭게 만든 셈이다.

### ▶일본은 전쟁에 <휘말리는> 쪽인가?

<남서 시프트[南西シフト]> 완성을 위한 밑받침이 되도록 <대만 위기> 를 외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는 언론에 자꾸 등장하면서 “중국은 이웃 나라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말해도 자멸적인 것이다” 등 공언하며 계속 중국을 도발하고 있다. 7월 참의원 선거에 맞춰 헌법개정 국민투표 실시를 꾀하는 개헌 세력은, 긴장 격화를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다. 틀림없이 “대만 위기란 일본 위기”, “민주주의 대만을 전체주 중국으로부터 지켜라”며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이 상황을 보고 일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아시아 정세에 불안을 느낄 거라 해도 일단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현황을 볼 때, 그러한 불안감이 오히려 중국과의 대결을

뒷받침하는 여론으로 동원되고 있다.

일본의 평화운동은 이에 대해 “개헌을 통해 일본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세울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을 전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외침은 과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또 사람들의 불안감에 제대로 응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일본은 군사 긴장을 고조시켜 온 당사자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일본이 정말로 전쟁에 <휘말리는> 쪽인가?

오늘날 동아시아에 있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당사자란, 세계적 패권을 지키기 위해 대중강경 자세를 취하는 미국, 혹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우며 대만·홍콩에 대해 고압적으로 대하는 중국뿐일 것인가? 일본은 미국에 끌려다니기만 할 존재인가?

아니다. 일본은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당사자다.

오늘날 동아시아가 크게 갈라진 기원이 된 1945년까지의 대일본제국에 의한 침략과 식민지화, 그 이후의 냉전·전쟁에 있어 일본이 수행한 미군 후방 기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은 논하지 않는다. 지금 지적하고자 함은 일본의 유구호 군사화란 미중 대립이 격화될 이전인 200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 나아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등 중국 포위망 구축을 선도하여, 서방국가에 호소해 왔다는 사실이다.

미일과 중국이 서로를 노려 보는 딱딱하고 날카로운 대치선을 동아시아 한복판으로 그어놓음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억지로 상태화하여, 이를 통하여 미일 대 중국이라는 대립과 균형의 신냉전 질서를 확립시킨다. 이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속셈이 아닐까 싶다.

일본은 <휘말리는> 쪽이 아니라 <끌어넣는> 쪽인 셈이다. 누구를 <끌어넣는> 것인가? 한반도, 오키나와, 대만을 잇는 미일중 사이에 낀 <제국의 틈새> 민중이다.

▶일본에 의해 전쟁에 휘말리는 한반도 - 오키나와 - 대만 사람들

한반도에 대해 말하자면, 일본은 그 동안 한국의 문제인 정권이 추진해 온 남북 화해 정책을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 그 사실은 트럼프의 측근이었던 볼턴의 회고록 속에서도 남겨져 있다. 또 지난 11월 한미일 협상에서 <한국전쟁 종결 선언>에 반대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대립과 균형 위에 유지된 동아시아 질서를 지향하는 일본은, 지역의 평화를 전제로 한 남북 화해의 진전을 원치 않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민중을 절박한 <전쟁의 위험> 아래에다 계속 놔두고자 한다.

대만에 대해서는 어떨까? 평화적 환경 속에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 나가기를 바라는 대만 사람들은, 홍콩의 저항을 탄압하며 팽창하는 중국의 압박에 위협을 느끼며, 미일에게 그것을 <억제> 할 역할을 기대한다는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기회로 삼아, 오히려 중국을 도발해 갈등 격화를 꾀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대만은 일본 제국주의에 빼앗긴 땅이기 때문에, 정작 일본이 여기가 제 세상인 양 도발해 오면, 물러날래야 물러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대만 문제>가 미일 대 중국 간의 군사갈등으로 바뀌쓰면서 대만인들은 더욱 불안 속에 빠지며, 미일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대만은 유구호와

하나가 된 중국 봉쇄를 위한 요새점으로 만들어진다.

미중 갈등이나 〈중국의 위협〉은 일본의 정책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채, 역으로 높혀 온 일본은 결코 전쟁에 〈휘말리는〉 나라가 아니다. 이 지역 강대국으로서 한반도 - 오키나와 - 대만 사람들을 군사 긴장에 〈끌어넣는〉 당사국이다.

▶일본의 평화 운동은 동아시아에 내재하며 '평화'를 구상해야 한다

이런 까닭으로 동아시아 그리고 일본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그 리스크를 〈제국의 틈새〉 민중에게 지우려는 일본 정부의 군사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저항하고, 이를 전환시켜야 한다.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남북한의 화해를 뒷받침하여, 그것을 통해 평화적 생존권을 둘러싼 〈제국의 틈새〉 사람들의 상황을 전진시키는 것. 그것을 위한 언어와 힘을 길러 내는 것. 일본 평화운동에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

나아가 많은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또한 〈제국의 틈새〉에서의 평화를 이룩하므로써 비로소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평화헌법〉을 수호하여 그 이념을 실현한다는 것 또한 이 방향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긴장 강화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내 법률 논쟁만으로 〈평화헌법 수호〉하기란 불가능하다. 일본의 평화운동이 지향해야 할 평화란 동아시아의 평화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 오키나와 - 대만을 잇는 〈제국의 틈새〉란 식민주의와 냉전으로 인해 중층적인 상처를 입은 지역임과 동시에, 군사지배로부터의 탈피와 민주화, 화해를 지향해 온 지역인 셈이다. 그것은 배타적인 주권선으로 분할될 수 없는/배제될 수 없는 더욱 온화하고 평화적인 지역질서를 모색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야 말로 미중일이라는 〈제국들〉이 맹진하는 〈강자의 질서〉에 맞서야 할 동아시아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2022년 1월 1일

- 이시이 노부히사 (石井信久, 〈섬들의 스탠딩〉 멤버)
- 우에마츠 세이지 (植松青兒, 잡지 편집자, 〈자위대의 유구호[琉球弧] 배치에 반대하는 액션〉 멤버)
- 가토 나오키 (加藤直樹, 논픽션 작가)

연락처

[20220101statement@gmail.com](mailto:20220101statement@gmail.com)